

13년간 쌓아올린 대기록...KIA ‘양현종의 전설’ 계속된다



KIA타이거즈의 ‘대투수’ 양현종이 13시즌 연속 100이닝이라는 대기록을 작성하며 한국 프로야구 역사에 또 하나의 발자국을 남겼다.

양현종은 지난 21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6 신한 SOL KBO리그 키움히어로즈와의 주중 3차전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5.1이닝 2피안타 3사사구 5탈삼진 1실점으로 호투했다. 그 결과 KIA가 11-1로 대승하면서 양현종은 시즌 9승(6패)째를 챙겼고, 2년 만의 두 자릿 수 승리까지 단 1승만을 남겨뒀다.

승리만큼 값진 기록도 따라왔다. 이날 경기 전까지 95.2이닝을 소화했던 양현종은 5회 선두타

자 김건희를 좌익수 뜬공으로 처리하면서 시즌 100이닝을 채웠다. 최종적으로 시즌 101이닝을 기록하며 2013년부터 시작된 연속 세 자릿수 이닝 기록을 13시즌으로 늘렸다.

이는 KBO리그 역대 최다 타이 기록이다. 종전에는 송진우가 1994년부터 2006년까지 작성한 13시즌 연속 100이닝이 가장 기록이었다. 양현종이 내년에도 100이닝을 넘긴다면 14시즌 연속이라는 전 인미답의 기록을 세우게 된다.

장원준이 11시즌 연속으로 이 부문 3위에 올라 있고 정삼송, 이강철, 조계현, 정민철, 류현진이 10시즌 연속으로 뒤를 잇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현종이 보여준 꾸준함의 가치는 더욱 두드러진다.

시작은 2009년이였다. 2007년 KIA에 입단한 양

현종은 데뷔 3년 차인 2009년 풀타임 선발로 자리 잡으며 148.2이닝을 책임졌다. 그해 12승을 거두며 처음으로 두 자릿수 승리와 100이닝을 동시에 달성했다.

2011년까지 3시즌 연속 100이닝을 넘겼지만 2012년 41이닝에 머물며 한 차례 기록이 끊겼다. 하지만 2013년 104.2이닝을 시작으로 다시 한번 꾸준한 행보를 시작했다.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뛰었던 2021년을 제외하면 올해까지 매 시즌 100이닝 이상을 책임졌다.

13시즌 연속 100이닝 역대 최다 타이...송진우와 어깨 나란히

통산 195승·2757.2이닝 역대 2위...200승 넘어 새 역사 정조준

단순히 100이닝만 채운 것도 아니었다. 양현종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시즌 연속 180이닝 이상을 소화했고, 2016년에는 개인 한 시즌 최다인 200.1이닝을 던졌다. 2017년에도 193.1이닝을 책임지며 KIA의 통합우승을 이끌었다.

현대 야구의 흐름을 고려하면 양현종의 기록은 더욱 특별하다. 투수 본업화와 체력 관리가 중요해지면서 매년 선발 로테이션을 지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됐기 때문이다.

올해도 양현종은 세월을 거스르고 있다. KIA가 베테랑인 양현종의 체력을 고려해 등판마다 투구이닝을 관리하고 있지만 21경기에서 101이닝을 책임지며 선발진의 한 축을 지키고 있다.

양현종의 기록 행진은 이제 KBO리그 투수 역사

를 향하고 있다.

그는 현재 통산 564경기에 등판해 2757.2이닝을 던지며 195승 133패 9홀드 평균자책점 3.91을 기록하고 있다. 통산 탈삼진은 2253개로 이미 KBO리그 역대 1위다.

남은 목표들은 한국 야구의 역사 그 자체다. 통산 다승에서는 송진우의 210승에 이어 역대 2위로, KBO리그에서 송진우만 밟았던 200승까지 이제 5승밖에 남지 않았다. 통산 투구 이닝에서도 송진우의 3003이닝에 이어 역대 2위를 달리고 있다.

38세의 나이를 고려하면 더 이상 매년 180~200이닝을 책임지던 전성기와 같은 모습을 요구하기는 어렵다. KIA 역시 양현종이 더 오랫동안 마운드를 지킬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양현종은 주어진 역할 안에서 꾸준한 선발 로테이션을 지키며 자신의 기록을 하나씩 늘려가고 있다.

무엇보다 그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당장 시즌 10승이 눈앞에 있고 통산 200승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내년에는 송진우마저 넘어서는 사상 최초의 14시즌 연속 100이닝이라는 새로운 이정표에도 도전할 수 있다.

2009년부터 KIA 마운드를 지켜온 ‘대투수’는 이제 누군가의 기록을 따라가는 것을 넘어 자신의 이름으로 KBO리그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 13시즌 연속 100이닝은 그 과정에서 세운 또 하나의 이정표일 뿐이다. 양현종의 전설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이 전국 규모 탁구대회를 잇따라 개최하며 여름 스포츠 열기로 뜨겁다. 사진은 오는 26일까지 해남우슬체육관에서 열리는 제59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남녀학생종별탁구대회가 참가한 선수들의 모습.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청

전국 탁구인 해남 집결...여름 스포츠 열기 ‘후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이 전국 규모 탁구대회를 잇따라 개최하며 여름 스포츠 열기로 뜨겁다.

23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제59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남녀학생종별탁구대회가 오는 26일까지 해남우슬체육관에서 개최된다.

특히 선수단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기장 시설과 편의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안전한 대회 운영을 위한 준비에 총력을 쏟고 있다.

해남군은 이번 대회 기간 전국 선수단과 관계자들이 지역을 찾아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을 이용하고, 지역 관광지를 방문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6일까지 전국남녀학생종별대회...29일부터 동호인 맞대결

선수·지도자 등 연인원 1만5000명 방문...경제 활성화 기대

전국남녀학생종별탁구대회는 국내 학생 탁구 선수들이 참가해 기량을 겨루는 전문체육대회로, 전국의 유망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준 높은 경기를 선보이고 있다. 오는 29~30일에는 제33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생활체육전국탁구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대회는 전국 탁구 동호인들이 실력을 겨루는 행사로, 지역과 세대를 넘어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해남군은 전국 각지에서 학생 선수와 지도자, 심판진, 생활체육 동호인 등 연인원 1만50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보고, 성공적인 대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전국의 학생 선수와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해남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전국 규모 체육대회를 유치해 스포츠도시 해남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남군은 축구, 농구, 배구, 배드민턴 등 다양한 종류의 전국 규모 대회와 전지훈련을 지속적으로 유치하며 스포츠와 지역경제를 연계하는 ‘스포도믹스’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빛바랜 김도영 38호포’ KIA, 키움에 7-8 역전패

3회초 한 시즌 개인 최다 홈런 타이 기록...9회말 6실점 쏟아내

KIA타이거즈가 키움에게 극적인 역전을 허용하며 패배했다.

KIA는 23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6 신한 SOL KBO리그 키움히어로즈와의 주말 3차전 경기에서 7-8로 패배했다. 앞서 21일 11-1 승, 22일 1-3 패를 거뒀던 KIA는 이날 승리로 키움과의 3연전을 무정시리즈로 마무리 지었다. 그 결과 60승 2무 50패로 승률 0.545를 기록했다.

이날 KIA는 박재현(좌익수)-김선빈(2루수)-김도영(3루수)-카스트로(1루수)-나성범(우익수)-오선우(지명타자)-하주석(유격수)-김태균(포수)-김호령(중견수) 순으로 타선을 짰다.

선발투수로는 제임스 네일이 나섰다. 총 89개의 공을 던진 네일은 6이닝 5피안타(1피홈런) 3사사구 8탈삼진 2실점으로 호투했다.

KIA는 2회초 선취점을 뽑아냈다. 1사 상황 오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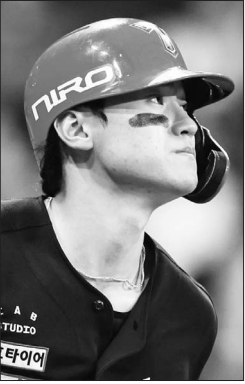
우, 하주석, 김태균의 3연속 볼넷으로 만루 찬스가 만들어졌다. 타석을 이어 받은 김호령은 희생플라이를 기록하면서 오선우가 홈에 들어왔다.

추가점은 3회초 터졌다. 1사에서 타석에 오른 김도영이 상대 3구째 149km 직구를 그대로 받아쳐 중앙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포를 폭발시켰다. 시즌 38호포, 정규리그 MVP 시즌이었던 2024시즌 작성한 한시즌 개인 최다 홈런 타이 기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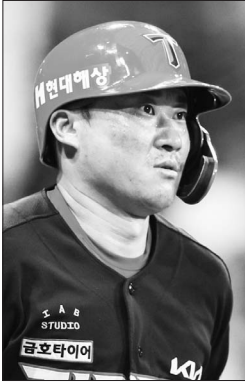
수비는 3회말 원점으로 돌아갔다. 상대 서건창의 안타 이후 추재현의 희생번트로 1사 2루가 됐다. 네일은 후속타자 데이비스에게 동점 투런포를 허용했고, 경기는 2-2가 됐다.

6회초 균형이 다시 깨졌다. 2사 1·3루에서 타석에 오른 박재현이 우측을 완전히 가르는 싸늘이 2타점 적시 3루타를 터트렸다.

KIA는 7회초 격차를 더욱 벌렸다. 김태균이 1사



김도영



김태균

2루 상황 상대 3구째 136km 슬라이더를 건어올려 좌측 담장을 넘어가는 투런 아치를 그렸다. 이어 김선빈의 1타점 적시타까지 나오면서 7-2로 경기가 크게 기울었다. 하지만 9회말 KIA가 극적인 역전을 허용했다. 이태양이 등판해 2실점을 내렸고, 마운드를 이어받은 이의리가 끝내기 만루포를 맞으면서 경기는 7-8 KIA 패배로 끝이 났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시체육회, 전국 최초 ‘스포츠 AI 코칭플랫폼’ 실증 나선다

스포츠과학연구원, 문체부 R&D 신규 과제 실증전담 기관 참여

광주시체육회 스포츠과학연구원이 인공지능(AI)과 스포츠과학을 결합한 새로운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에 나선다.

광주시체육회는 스포츠과학연구원이 전국 최초로 2026년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개발사업 신규 과제인 ‘스포츠 AI 코칭플랫폼 사업’의 실증전담 기관으로 참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전문기관으로 관리하는 ‘개인운동기록 활용 기술개발(R&D) 사업’ 9개 과제 가운데 하나다. 연구개발 과제명은 ‘운동효과 향상을 위한 스포츠 에이전트 실증 기술개발’이다.

사업은 지역 데이터 전문업체인 위치스가 주관

하며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생체재료개발센터와 전남대학교병원, 커넥티드 등이 공동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된다.

특히 이번 과제는 지역 AI 기업을 비롯해 헬스케어 전문기관과 의료기관, 광주스포츠과학연구원이 사업 제안 단계부터 수요기관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광주스포츠과학연구원은 앞으로 스포츠 현장에서 운동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개발된 기술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사용자에게 기술을 적용해 운동 효과를 분석하는 등 스포츠 AI 코칭플랫폼의 현장 실증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한 운동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개인별 운동 기록을 AI로 분석하고, 이를 실제 스포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체육회는 스포츠과학과 AI 기술의 결합이 향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개인 맞춤형 운동관리 서비스 확대와 스포츠 헬스케어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스포츠과학을 활용해 추진해온 여러 정책들이 본격적인 성과를 내고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 통합특별시민 누구나 과학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